



배합사료가격 대폭 인상

— 연초대비 종계사료 10개월만에 82.5% 올라 —

노 영 한

11월 3일 부터 대부분의 배합사료 공장은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20% 정도 대폭인상 하였다.

11월 초 부터 사료 가격이 5%정도 인상 될 것이라고 사료 공장들이 양축가에게 통보 하였고 양축가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공장은 이번에 5%정도 오르고 금년중으로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양축가들을 안심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공급 가격이 10월 30일 0시를 기하여 t 당 160\$에서 185\$로 15% 인상 됨으로써 소폭 인상으로 예정되던 것이 대폭인상을 불가피 하게 만들었다.

월말과 주말이 겹친 지난 31일과 1일은 사료 공장들을 지극히 바쁘게 만들었고, 양축가들의 주말을 우울 하게 만들고 말았다.

주요 인상 요인

이번 사료가격이 대폭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인상 요인을 사료 공장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10월 13일 밀기울 값이 58%정도 인상 되었고

2. 대두박 가격이 kg당 40~50원(약20%) 인상 되었고 (대두박 가격도 자율화 되었음).

3. 옥수수 공급 가격이 160\$에서 185\$로 지난 30일 부터 인상 조정 되었으며

4. 국내 어분 가격도 220원에서 320원정도로 인상 되었고

5. 밀기울 가격 인상등으로 국내산 강피류 가격이 1g 당 70~90원으로 인상 되었으며

6. 보릿겨 가격도 43% 인상 되었고

7. 변동환율제 실시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8. 그간 사용한 옥수수에 대한 환차손 등이 라고 한다.

이번 가격 인상된 내용을 보면 배합사료 가격은 현재 자율화 되어 있어 각사료공장의 여건에 따라 약간씩 가격이 달라야 정상일 것으로 생각 되어지나 공급로케도 각회사의 인쇄된 사료 가격표를 보면 전품목이 똑같은 것이 있어 사료 업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인상을 질게 풍기고 있다.

각회사가 각기 원가계산을 하고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출하였겠지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는 결국 더싸게 사료 가격을 책정 할 수

1980년 11월 4일

10월대비 사료원료비 인상내역

원료명	10월 중가 원 / kg	11월 중가 가격 (11/4일현재) 원 / kg	원료별 인상율 (%)	배합사료중 구성비 (%)	배합사료중 원료비 인상율 (%)	비고
옥수수	\$ 160/M/T	\$ 185/M/T	15.63	60	9.38	안정기준가적인상 (10/31 일부)
대두박	189.80	229.80	21.07	12.5	2.63	미확정
소맥피	42.22	67	58.69	7	4.11	10/13일자인상
말분	54.81	76	38.66	3	1.16	"
탈지강분	80	90	12.5	5	0.63	"
어분	280	320	14.29	3	0.43	"
채종박	130	145	11.54	1	0.12	"
침가제			10	0.2	0.2	사료첨가제평균적용
소계			2.54	60	18.66	
환자발생에 따른인상 계					1.52	
					20.18	

환치손발생표

	3/1	10/20	11/1	인상율	C.C.C 비율	년	옥수수인상율(%)
C. C. C 3매분	583.6		652	23%	23%	5.29	0.66
K. FX 3매분		640	652	1.88	—		1.88
계							2.54

도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발을 맞추기 위해 비싸게 책정 되었거나 또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료 품질을 조절하게 되어 당초의 가격 자율화 목적에 빛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어 진다.

각사료 공장마다 인상요인이 각기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사료 가격 인상 내역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가격이 자율화 됨에 따라 각회사 별로 그 인상폭이 다르나 양계 사료의 경우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계가 82.5%, 산란 초기가 76.5%나 10개월만에 인상되어 양계 농가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공장에 따라 이보다 1~2원 싸게 또는 각종 혜택을 주어 판매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란계 사료가 76.5% 인상 되는 동안 계란값은 32.8% 올랐고 육계의 경우는 69.8% 사료값 인상 되는 동안 닭 값은 11.7% 인상 되었다.

물론 양계산물의 가격 잔폭이 크기 때문에 1월과 11월을 비교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치는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료값이 10개월간에 75%정도 오른다는 것은 양축가에게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큰 충격 막을수 없는 것이었을까?

배합사료의 주원료는 옥수수와 옥수수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80년 배합사료가격표

kg당 11월은 예정임

구분	품목	1월 1일	2월	3월	8월	9월	11.3	년초대비
어린	병아리	122.44	142.94	143.10	154.39	172.70	209	70.7%
중	병아리	108.74	139.47	138.97	145.17	156.20	187	72
큰	병아리	91.79	114.94	114.91	125.58	132.28	160.60	75
산란	초기	104.25	134.51	133.91	139.03	151.79	184.80	76.5
산란	중기	98.09	131.17	134.54	134.24	145.64		
육계	전기	128.24	158.44	157.92	168.08	183.46	217.80	69.8
육계	후기 I	124.30	148.91	148.32	160.73	173.22	209	68.1
육계	후기 II		147.36				209	
종	계	103.68	135.74	135.04	142.06	154	189.20	82.5
젓	먹이 돼지	119.33	139.08	139.82	152.42	173.77		78.8
육	성돈	100.64	132.07	131.38	136.80	151.80	213.40	81.4
비	육돈	97.49	132.70	131.85	133.66	145.43	182.60	78.3
임	신돈	90.52	125.77	124.53	124.84	129.24	173.80	79.8
포	유돈	98.59	131.62	130.97	133.67	142.81	162.80	78.5
종	돈	92.74	125.72	124.21	126.68	129.23	176	73.2
어린	송아지	109.57	138.40	141.56	155.45	180.40	160.60	92.8
중	송아지	105.39	133.85	133.58	140.41	151.80	211.20	71.2
큰	송아지	82.42	110.02	109.42	117.91	123.30	180.40	81.5
임	신우	83.05	110.64	108.98	115.62	120.87	149.60	
착	유 1호	81.39	110.40	111.23	116.45	119.40		
착	유 2호	89.03	123.09	122.50	126.23	129.80		77.9
착	유 3호	98.75	131.22	130.36	132.47	145.20	158.40	73.8
고기	소전기	90.25	126.87	126.16	128.81	137.05	171.60	
고기	소후기	87.44	123.70	120.99	121.22	127.60	154	76.1
종	모우	80.32	107.86	105.22	107.78			

※공장상차도 가격

편집부조사

사료 가격과 양계산물 가격인상 대비표

	계	란	닭고기	사	
				산란초기	육계전기
1월초	241		752	104.25	128.24
11월초	320		840	184.80	217.80
인상율	32.8%		11.7%	76.5%	69.8%

계란 대란 10개 기준 닭고기 생체 kg당
사료 kg당

73년 제 1 차 석유파동때 60여 \$하던 옥수수
수가 180\$ 가까이 폭등해서 우리 나라 축산업
이 홍역을 겪은 것을 아직도 많은 축산인이
기억 할 것이다.

그후 정부와 업계에서 크게 느낀바 있어,
옥수수 값이 쌀때 일정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일시적으로 값이 오르면 이를 보진하여 사료
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소위 사료 안정기금
을 적립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 제도가 생길때 찬반의 논란이 많았으나 양계 경영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 값을 안정시켜 양계산업을 안정화 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시행 되어 왔다.

그러면 사료 안정기금은 그간 얼마나 모여졌고 어떻게 쓰여 졌으며 이번의 대폭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는 없었는지 알아본다.

1975년 7월 이후 계속되는 옥수수 가격의 안정으로 그간 사료 안정 기금은 433억 9천 만원이나 적립 되었다.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이중 환율의 차액보전과 옥수수등 그간 옥수수 값을 안정되게 공급하는데 2백 6십 7억 5천 8백만원이 사용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별	보 전 액
76년	5억 7천 7백만원
77	7억 4천 1백만원
79	67억 5천 8백만원
80	186억 8천 2백만원

80년도에 특히 많은 것은 환차 부담(년초\$당485원 하던 것이 593원으로 인상될때 5~6십억 보전)등이 특히 컸기 때문이며, 옥수수를 장기 외상으로 구매하여(CCC 등)발생하는 환차손액중 처음 4~5개월 분을 사료안정기금에서 부담 하였는데(앞으로는 폐지)이 금액이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금액으로 일부 충당 되었다.

그외 융자지원(사료 공장 근대화 자금등)액이 89억 3천 2백만원으로 이는 대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있어 다시 회수가 될 돈이다.

이렇게 되어 10월말 현재 사료 안정기금 이 남아있는 액수는 77억으로 부득이 옥수수의 공급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이 된다.

환율이 오르고 옥수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사료 수급조절 자금이 약 108억(즉 옥수수 2개월분의 구매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77억 밖에 없으며 이번 185\$로 인상 하므로써 년 말까지 약 27억이 적립되면 104억정도가 되어 내년부터 구매 자금은 확보하게 된다.

그후 적립되는 것은 사료사업 지원 자금으로 쓰이게 되며 이 중에는 국산 옥수수에 대한 가격차 보상과 벧질사료등 사료 자급화에도 지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동안 힘겹게 우리가 적립 하였으나 옥수수 물량이 증가하고 금년은 환율인상 요인 때문에 적립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났으나 한편 생각하면 그만큼 금년에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양측가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년 2월 사료 공장들이 CCC 자금을 상환하게되면 그간 발생하는 환차손이 다시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등장하는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양측가나 혹은 사료 공장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는 엄연히 그간 사료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료 공장들이 활용하여 갚아야 할 성질의 것이지 배합사료 가격에 부담시킬 성질은 아닌 것이다.

그간 환율이 아무리 인상되어도 8~9%에 머무를 것이며 금리를 합하여도 20% 미만에 그칠 것이고 이는 국내 공금리25%에 비교할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돈이 그간 외상 판매 대금으로 사용되어 회수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이 요인만은 사료공장 자체에서 해결되어 지기를 바란다.

생산 조절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옥수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대두박 가격이 모든 단백질 원료 사료의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인데 현 국내에는 동방유량(주) 제일제당(주) 삼양유지(주) 등 대두박 생산 업체가 있으나 제일제당은 공장 증설로 가동을 중단 상태에 있고 삼양유지도 이제 겨우 시험 가동을 하는 정도로 동방유량 한 곳만이 생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국제 콩값의 인상과 환율인상등 이런 여건 하에서 가격의 자율화란 자연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크게 할 뿐이며 과거에는 식용유에 비중이 컸으나 식용유 값은 통제되어 더욱 대두박 가격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사료 협회등에서도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국제 시장에 눈을 돌려 적기에 단백질 사료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양축가들이 계속 지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번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미칠 영향을 축종별로 보면 소의 경우는 만정적인 쇠고기 부족과 배합사료 의존도가 적어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이며, 돼지의 경우는 작년도의 불황으로 이미두수가 크게 감소하여 현재 상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 근교의 배합사료의 존도가 높은 낙농과 함께 양계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닭고기의 경우 과거 10년간 약 3.1배 밖에 오르지 않았고 계란을 2.76배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닭고기 1.75배 계란은 1.71배가 겨우 증가되었고 더구나 육류중 닭고기의 비율은 69년 28%에서 79년은 21.2%로 크게 떨어지고있어 그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이번 사료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면 또 한번 소비가 위축되어 불황이 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내핍의 생활화 등으로 소비 확대 선전도 어려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각자 스스로 생산 조절을 하여 양계산물의 가격을 적정선에 유지하는 길 밖에 없게 되었다.

부화업자 채란양계업자 부로일러업자 모두 스스로 자제하고 생산을 조절하는 길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단 하나의 방법이다.

— 사료 원료 수입가격 차액 납입금(사료기금) 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년 도 별	적 립 액	운 용 사 항				잔 액 (사료구매자금)
		보 전	용 자	소 계	사료구매자금	
1975	439					439
76	2,207	577		577		2,069
77	11,149	741		741		12,477
78	10,453	—	2,600	2,600		20,330
79	7,137	6,758	3,700	10,458	(10,800)	17,009
80	12,005	18,682	2,632	21,314	7,700	△3,100
계	43,390	26,758	8,932	35,690		△3,100 (7,700)

※ 잔액은 사료용 옥수수 구매 자금으로서 1회전(2개월)소요자금은 108억원에 해당되나 '80.10.말 현재 31억원이 부족

※ 1회전 소요자금 350,000톤×30,900원=108억원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양계가 반응은 p. 141로 계속)